

## 위암 환자의 담즙 CEA농도와 간전이에 관한 연구

고신대학교복음병원

백상현, 신연명, 최경현

**(목적)** 대장 직장암 환자의 담즙CEA농도와 간 전이에 관한 연구는 최근까지 10여 편으로 많이 보고되고 있으나, 위암에서는 보고를 찾을 수 없었다. 이에 저자들은 위암 환자의 담낭 담즙의 CEA농도가 높은 경우 간 전이를 예측할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하여 연구 하였다.

**(방법)** 1995.12~1997.4에 본원에서 수술한 위암 환자들에서 담낭의 담즙을 10 ml 천자하여 RIA방법으로 담즙의 CEA 농도를 측정한다. 수술 수 원적 검사에서 초음파, 전산화 단층 촬영으로 간 전이를 확인한다.

**(결과)** 동기간에 담즙의 CEA농도를 측정한 사람은 110명이고, 이 중 에스 결장암으로 간전이, 담낭암 및 간암 각1예와 담낭염/담석증 환자 2명을 제외하였으며, 간 전이 이외의 병이나, 암의 재발로 조기에 사망한 20예를, 추적 검사가 짧았던 39명을 제외한 52명을 보고의 대상으로 하였다. 간에 전이가 있었던 35세 여자는 담즙 CEA 821 ng/ml 이었는데 혈청에서는 32.4 ng/ml이었다. 수술 시에는 간 전이가 없었던 5명에서 수술 후 10개월에 간전이가 발견되었으며, 이들의 담즙 CEA 농도는 3.1~26.5 ng/ml 평균 16.36 ng/ml이었다. 1명만 3.1 ng/ml의 낮은 수치를 보였고, 나머지 4명은 모두 13.8 ng/ml이상이었다. 반면에 간의 전이가 없었던 46명에서는 담즙의 CEA농도가 0.3~170 ng/ml (평균15.1)이었고, 이들 중에 C-형 간염을 동반 하였던 2명은 각각 54.5, 170 ng/ml로 높았고, 간흡충을 동반하였던 2명은 각각 15.1, 68.3 ng/ml로 높았고, 담석을 동반했던 1예는 34.7 ng/ml로 높았다. 이외에도 확인된 동반 질환이 없었던 6예에서 10 ng/ml 이상을 보였다.

**(결론)** 이상의 결과로 보아 위암에서도 수술 중에 채취한 담즙의 CEA농도는 간염, 간흡충이나 담석증이 없는 환자들에서 10 ng/ml 이상인 경우 간전이 유무에 대하여 각별한 주의를 요하며, 적극적인 항암 요법도 고려하는게 좋다고 생각하나, 좀 더 많은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요망된다.